

# 욥기 개관

## 1. 개요

욥기는 고난의 신비를 다루는 지혜문학으로, 경건한 의인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직함과 신앙을 지켜가는 **신정론적 서사시**입니다.

단순한 “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?”라는 질문을 넘어, **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,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신앙인가**를 묻는 책입니다.

---

## 2. 저작 연대

욥기의 정확한 기록 연대는 불분명합니다.

그러나 다음과 같은 추정들이 있습니다:

- **내용상 시대**: 족장 시대적 요소들(욥의 장수, 제사 방식, 재산의 형태 등)로 인해 **아브라함 이전 또는 동시대로** 추정하는 견해.
- **문서 기록 시기**: 솔로몬 시대(지혜문학 전성기), 또는 포로기/포로기 이후의 고난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을 가능성.

개혁주의 전통은 욥기의 연대를 절대적으로 규정짓지 않으며, 그 신학적, 문학적 깊이에 주목합니다.

---

## 3. 저자

저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. 전통적으로 모세나 솔로몬이 언급되지만, **확정할 수는 없습니다.**

다만, 저자는 깊은 신학적 통찰과 시적 기교를 가진 지혜로운 신앙인 혹은 선지자적 인물로 보입니다.

그의 글은 철학, 문학, 신학이 아름답게 융합된 성령의 감동 아래 기록된 말씀의 산물입니다.

---

## 4. 기록 목적

- 의인의 고난이라는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재해석하기 위함.
  - 인간이 모든 고통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고,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함.
  - 형통만이 하나님의 복이 아님을 밝히고, 경건은 결과가 아니라 존재의 태도임을 가르칩니다.
- 

## 5. 단락 구분

1. 1-2 장: 서문 (지상과 하늘에서의 시련 개시)
  - 욥의 의로움과 사탄의 도전, 고난의 시작
2. 3-31 장: 대화 (욥과 세 친구의 논쟁)
  - 엘리바스, 빌닷, 소발과의 세 차례 대화
  - 욥의 탄식, 반론, 자신의 의로움 주장
3. 32-37 장: 엘리후의 발언
  - 새로운 인물의 등장, 고난의 교육적 목적 제시
4. 38-42:6: 하나님의 응답과 욥의 회개
  - 창조의 위대함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 선언
  - 욥의 침묵과 회개
5. 42:7-17: 결말 (회복과 회복된 의)
  -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고, 욥의 중보로 그들을 용서하심
  - 욥의 회복과 축복

---

## 6. 중심 메시지

“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, 인간은 그분 앞에서 겸손히 신뢰해야 한다.”

욥의 핵심은 왜 고난이 오는가보다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습니다.

욥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, 포기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습니다.

오히려 그는 침묵 속의 하나님을 향해 계속 대화하며, 결국 하나님께 나아옵니다.

---

## 7. 신학적 이슈

① 신정론(Theodicy): “왜 의인이 고난받는가?”

-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적 신관(네가 죄지었으니 고난 받는다)을 고수합니다.
-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단순한 원인론을 거부하시며, 인간의 이해를 넘는 섭리와 주권을 강조하십니다.

②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겸손

-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나,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입을 닫습니다(욥 40:4-5).
- 하나님의 응답은 설명이 아니라, 계시와 임재 자체입니다.

③ 엘리후의 역할

- 엘리후는 친구들과 달리 하나님의 교육적 고난을 강조하지만, 그의 말도 부분적 진리에 그칩니다. 최종적 해답은 하나님의 현현과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.
-

## 8.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욥기 해석

### ① 하나님의 주권 강조

- 개혁주의는 욥기의 전체 구조 속에서 **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인간 이해의 한계**를 인정합니다.
- 칼빈은 욥기의 주제를 "고난받는 성도의 신앙"이라 하며, **믿음이 이해보다 앞서야 한다고** 강조했습니다.

### ② 은혜 중심의 경건 강조

- 욥은 자신의 경건함으로 고난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. **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회복됩니다.**
- 이는 신앙의 의와 언약의 은혜를 대비시켜 결국 **그리스도의 중보 사역**을 예표하는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.

### ③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 가능성

- 욥은 **중보자를 갈망하며** 말합니다:

“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손을 얹을 자가 있으면 좋겠구나.” (욥 9:33) 이는 신약에서 오실 **예수 그리스도의 모형**으로 연결됩니다.

- 고난 속에서 신실함을 유지하는 욥은 **장차 고난 받으실 의로운 메시아**를 예표합니다.